돌이킬 수 없는 후회상황 대처법

(사무엘하 12:10~23)

10.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상황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상황 대처법'
십년 전쯤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머니에 대한 얘기를 설교 중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2015년 11월에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20대에 일본 밤무대에서 가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의 얼굴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하지만 인상이 강해 보일까 불안한 나머지 얼굴에 보형물을 넣기 시작했고, 이후로 성형 중독이 되고 수술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의료용 실리콘 대신에 공업용 실리콘 파라핀 콩기름을 스스로 얼굴에 주입하였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는 것이 정상임에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청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콩기름을 넣으라.'는 환청이 들려서 계속해서 이물질을 주입한 결과 그 예쁘던 얼굴이 풍선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원래 얼굴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크게 부풀어 올랐던 턱으로 인해 발음까지 부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행위는 지적을 당해 마땅하지만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주변의 도움으로 2004년부터 무려 17차례의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기사의 마

지막에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부풀어 올랐던 풍선이 바람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본래의 형태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오빠와 함께 학교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외모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외모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결과들이 내 삶에 밀물처럼 밀려들어 오는데 이 불행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에 묶여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것은 마음은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무책임한 도피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 자체가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고 그 상황에서 떠나면 되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상황을 티끌처럼 여길 수 있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인간세상에서 자살밖에는 길이 없고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상황이 티끌처럼 여겨질 수 있는 커다란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돌이킬 수가 없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상황이라면 벗어날 길이 있는데, 내 마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찾아내야 하는데 바로 내 마음의 처소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이 세상 전체를 버리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셔서 그 역사를 공생애로 시작하실 때에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셨는데, 취임식과 같은 현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 아들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려고 하심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본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주대하시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엡2:4~6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히신바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실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돈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들처럼 자식 걱정, 승진 걱정, 결혼 걱정,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 재벌 되고 싶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주어져도 좁쌀 같이 여길 수 있게 하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건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의 이물질이 주입되어서는 안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얼굴에 공업용 이물질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처럼 내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자녀를 담으면 얼굴에 이물질을 넣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물질이 삽입된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삽입된 내 마음이 죽고 백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삽입된 죄인 됨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우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릴 형벌을 예언하십니다.
그 뒤로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일주일을 앓게 되자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주일을 금식하자 신하들이 음식을 권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기도하지만 기어코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실신할 것을 우려한 신하들이 아기가 죽은 것을 고하지 못하던 중에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먼저 아기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다는 대답을 듣자 다윗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관을 정제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껏 아이를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처절하게 애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적이 없었는데 아이가 죽자마자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윗은 자신이 금식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죽어갈 때에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이를 두 손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바치듯이 해서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달

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에 하나님보다 아이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자녀가 불쌍해 보이고 제구실을 못할까 앞날이 걱정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시다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의 상실이 나의 상실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이의 죽음을 보고 실신이라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막상 아이가 죽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자체는 이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올 때에는 이물질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서 이물질이 들어있던 그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시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조차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의 값에 대해여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밧세바 이물질이 삽입됨으로 죄를 짓게 되었으나, 그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셔 들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이물질이 삽입된 상태에서 저질렀던 행동의 대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죗값에 대한 형벌로 아기가 죽는 것을 시작으로 다윗의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동복오라비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갔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므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치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탐욕을 가졌던 그 왕궁의 옥상에서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망동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도 자기의 이복형제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야를 죽이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한 후에도 이러한 죗값을 치렀듯이 우리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이유가 되는 이물질이 삽입된 상태가 회복된 뒤에도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당해야 됩니다. 우리 죗값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죗값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53:4~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죗값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죗값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죗값이 용서 된 것은 죗값에 대한 형벌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없어져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향해오던 죗값의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원의 두 가지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물질을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눅 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신 것도 이물질을 마음에 삽입한 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물질이 삽입된 추한 마음이기 때문에 추한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에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아버지와 주님이 관계하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좁쌀처럼 작게 여길 수 있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죄 됨의 극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 된 존재됨이 그렇게 해결이 되었어도 죗값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채찍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은 다윗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예언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예언되신 대로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사소하게 보일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죗값에 눌려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적인 새 삶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원망 없이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옥의 생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 붙잡음으로서 죄인 됨도 극복되고 죗값도 극복이 된다는데 왜 이 길을 놓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이 후회스러운 상황에 대해 대처함으로서 새로운

창조적 삶을 하늘같은 큰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